

기고

유 명 숙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행복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지난 제20대 국회가 열린 후 KBS에서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157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행복지수 1위로 선정된 덴마크의 정치를 소개했다.

"무엇이 작은 나라 덴마크를 1등 국가로 만들었을까? 검소하고, 부패가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 '정치'다. '덴마크 정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 정치가 무엇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덴마크의 한 초선의원은 40만 원하는 중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전체의원의 3분의 1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그에게 대한민국 국회 주차장 사진을 보여주자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

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자전거를 타는 건 시민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의회 법사위원장은 '정치의 목표는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며, 5. 30.부터 제21대 국회가 시작된다. 4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그전과 얼마나 달라졌나 모두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다.

연일 마스크를 통해 국민이 보아왔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당리당락에 휩싸여 민생법안과 예산안 문제를 방치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장출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선거일 전날까지는 국민의 성실한 일군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당선 후에는 국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국회의

원들의 모습은 그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에게 씁쓸한 마음만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고 말한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 명쾌하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한다. 후보자들은 나라의 미래인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될만한 명예롭고 존경받을 수 있

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기간중 페어플레이는 기본이며, 이들이 살아갈 나라·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야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이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의 삶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인도 스스로 훌륭해지며, 훌륭한 후보자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 혈연·지연·학연 등은 떨쳐버리고,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깨끗한 한표로 인해 4년 동안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과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社 說

#### 안철수 신당, 벌써 네 번째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의 노선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새해 벽두 귀국과 함께 정치 재개를 선언했던 그가 일각에서 전망했던대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과거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한참 뜸을 들이던 그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일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에 쫓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바 '안철수 정당'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그가 지난 2012년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설사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유학했던 기간까지 포함해도 2년에 한 번씩 정당을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기업의 오너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저 벤처기업을 만들듯이 정당을 만들고, 필요하면 다른 당과 합치며, 또 가치가 줄었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을 당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특이한 이력을 앞세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가 처음 국민에게 했던 말은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상기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하다. 더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만들어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호남 의석을 사실상 석권하다시피했던 4년 전을 생각하면 배신감을 토로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안타깝다.

그는 여야 거대 정당을 모두 비판하고 탈(脫) 이념을 앞세워 제3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특히 그는 귀국 직후 첫 행 때울리엔 설사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유학했던 기간까지 포함해도 2년에 한 번씩 정당을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기업의 오너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저 벤처기업을 만들듯이 정당을 만들고, 필요하면 다른 당과 합치며, 또 가치가 줄었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버리는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겨울철 요양시설 피난유도 안전관리 생활화 해야

여러 기관이나 언론보도, 칼럼 등을 보면 사회적 약자시설, 취약계층, 요양병원,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나 화재 발생 시 사회적 충격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가끔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또한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교육 때면 자주 강조하고 있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안전관리 법칙을 재강조하고 싶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300번의 사소한 전조가 나타나며 이후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며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는 결국 크고, 작은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돼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재난에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기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화재와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크고 오랫동안 반복돼 왔으며 소방기관에서 육상재난대응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상시 관리체제가 구축 돼 있지만, 폭발·가스·추락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돌발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과 사고 예측은 한

계가 있어 대응에 어려운 면도 있다. 하인리히법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규칙적이며 독립적으로 보여 지는 300번의 사소한 전조에서 재난유형별로 돌발요인을 최대한 분석해 사전 대비가 가장 필요한 해빙기를 지나 봄철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야겠다.

인적재난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집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 봄철 나른한 시기, 설·추석 명절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터미널, 여름 휴가철, 봄·가을 행사가 많은 행사철이 바로 그 때이다. 이러한 취

약시기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예측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명피해 경감에 소방부서들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안전관리요원배치 등 안전망을 정착해 나가며, 설·추석 명절, 봄·가을 행사철, 동절기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측·예방·제거 활동에 주력하고, 일시에 많은 인파가 집중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계획수립 초기부터 안전 매뉴얼을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또한 모든 도민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양보운전 실천과, 가정마다 직장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유사시 적극 활용해야겠다.

백중희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로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 김평호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7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